

# 문화·예술·젊음 어우러진 '컬처버시아드' 스타트

**광주U대회 D-50**  
성공 개최 시민에 달렸다

**광주 알리는 국민문화축제**

지근촌 젊은이들의 스포츠 대축제인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와 전남·북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70여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만여명의 대학 스포츠 선수단과 기자단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대회 D-50일을 기점으로 테스트이벤트 개최 및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하는 등 사실상 실전에 돌입했다. 손님맞이를 위한 막바지 점검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에게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광주U대회의 비전인 EPI(Eco·Peace·IT·Culture)의 구현을 통해 광주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예향 광주'의 멋과 흥을 발휘하는 '컬처버시아드'〉=조직위는 '예향' 광주는 도시색을 살려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과 역량을 내뿜는 '컬처버시아드'(Cultureversiad)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U대회 기간동안 사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젊음이 어우러

테스트이벤트 등 실전체제 돌입

예향의 멋과 흥 세계속에 심기

문화전당 연계 다양한 문화행사

진 전세계 대학생들의 국제 스포츠 문화 축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에서는 '빛'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 젊은이들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사한다. 광주시는 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2015세계청년축제'도 광주 전역에서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6~8월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광주 U대회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대회기간에 맞춰 아시아문화전당을 미리 개관(pre-open)해 다양한 시범 운영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회 개막 전인 7월 3일부터 1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아시아스포츠 축제제를 개최하고, 7월 4일과 5일에는 문화전당 예술극장 사전개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계 선수와 지역민, 문화로 뭉치〉=광주U대회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충북 지역의 37개 경기장과 32개 훈련장에서 개최되며, 24개 행사장을 중심으로 21개 자치단체와 대학이 참여해 지역 문화와 대학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마련된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개관 1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카톨릭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개관식이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영진 5·18 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장,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광주 국회의원들이 상설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

조직위가 선보일 문화행사는 총 6개 프로그램으로 전야제, 유니버시아드파크, FISU Gala, 선수촌 문화행사, 경기장별 문화행사, 청년페스티벌 등이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에 앞서 7월 2일 음악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야제를 개최한다. 같은 날 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는 'FISU Gala'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U대회 주경기장 인근에서는 대회기간 내내 대회 참가 선수와 임원, 시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체험 행사인 '유니버시아드파크'

도 펼쳐진다. 금남로 일대(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에서는 청년 난장 페스티벌이 열린다.

〈대회 분위기 '뭉치' 시킬 프로그램 만들기〉=5월 말부터 예정된 문화행사들은 대회 임박을 알리고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대회전까지 개최되는 문화행사는 전국 성화봉송, 자원봉사 발대식,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시민한마당 음악회, D-10일 음악회 등이다.

특히 전국 성화봉송은 파리 소르본대학 국외 체

화와 무등산 장봉재 국내 체화가 광주U대회 개막 D-30일인 6월 3일 합화된 후 6월 4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630개 구간, 3700km를 거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봉송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에서 체험하기 힘든 콘서트형 문화행사도 시도된다. 대회기간 중인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리는 (가칭)광주피크닉페스티벌은 K-POP을 비롯한 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가 진행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되던

### 보통교부세 인구 따라 배분...광주·전남 불리

정부가 1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지방재정개혁이 추진되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보다 중앙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매워주는 보통교부세를 나눠줄 때 사회복지 부담의 '가산비용'을 현재 20%에서 약 3년에 걸쳐 30%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담의 가산비용이란 보통교부세 배분 계산식에서 자치단체의 지출항목 중 사회복지 지출을 실제보다 더 쳐주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시가 노인·영유아·장애인·기초생활보장에 100억원을 지출했다면 현행 산식에서는 1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하므로, 당연히 보통교부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부담에는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보다 유리해진다. 반면, 수도권과 영남, 충청 등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와 전남, 전북은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사회복지 부담의 가산비용을 30%로 올리면 사회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올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약 1조 3000억원 더 받아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 중 사회복지 비중도 25%에서 35%로 높여기로 했다. 자치구의 복지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약 1000억원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세출 절감 노력과 세입 확대 노력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메달리타)도 강화된다.

아울러 배분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치권 실제 지역구에 집중돼 정부의 '참치돈'이나 '국회 로비금'으로 불리는 특별교부세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별교부세의 기준과 운영방향을 미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 2015.7.3~7.14)  
성공 개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원합니다

“이젠 당당하고 상쾌한 당신”

# 금연자들의 전성시대

국민건강보험이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2015. 2. 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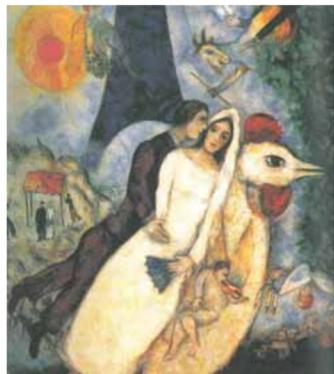
<p><b>금연치료 지원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li> </ul>	<p><b>금연치료 의료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li> <li>※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는 공단홈페이지(<a href="http://www.nhis.or.kr">http://www.nhis.or.kr</a>)에서 확인 가능</li> </ul>
<p><b>금연치료 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료의 70% 지원</li> <li>●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캔, 사탕) 구입비용의 30~70% 지원</li> </ul>	<p><b>인센티브 지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li> </ul>

☎ 1577-1000

## 행복한 신랑·신부...“예술의 참정신은 사랑”



(113) 결혼



마르크 샤갈 작 '에펠탑의 신랑 신부'

손꼽아보니 올 봄엔 거의 매주 결혼식장엘 다녀온 것 같다. 친한 친구들 자녀 결혼식도 연이어서 벌써 혼사 쟁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나이가 되었다는 자각도 든다. 예식장은 언제나 부산하고 하객들로 가득하다. 며칠 전 심각하게 보도되었던 “결혼 너무 안 한다”는 언론의 뉴스도 주말 예식장에서만은 실감나지 않는다.

결혼 제도가 생긴 이래 결혼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의와 명인들이 있어왔지만 결혼을 환상과 동경, 설렘으로 인식한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결혼의 행복감을 한껏 그림 안에 투영시켜 온 마르크 샤갈(1887~1985)이 이 계절에 돋보이는 이유다.

샤갈의 '에펠탑의 신랑 신부'(1939년 작)는 청년 시절의 연인이자 반려자였던 아내 벨라와의 결혼을 묘사한 작품이다. 신랑 신부를 태우고 에펠탑산으로 날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수탉, 부케를 든 천사, 촛대를 든 또 다른 천사와 바이올린 연주자인 염소 등이 사랑과 환희, 익살이 넘치는 결혼식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러시아의 변방도시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샤갈은 파리, 베를린을 거쳐 20세기 파리의 중요한 전위미술가로 활동했으며 만년에는 남프랑스의 밝은 색채에서 생의 광명을 찾

고 니스에서 타계했다. 어느 한 자리에 붙박이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유대인의 유랑의식은 은연중 샤갈 예술 속에 깊게 스며들어 무중력의 환상적 풍경으로 표현되었던 것 같다. 물구나무 선 사람, 지붕위의 바이올리니스트, 공중으로 날 날아갈 듯 떠가는 연인들의 모습은 지상에 살면서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디아스포라로서의 내면 풍경이었을 것이다.

고향에 대한 향수 못지않게 사랑의 연인에 대한 순정과 사랑의 다짐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만일 우리들이 부끄럼 없이 사랑이란 말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술의 참다운 정신은 사랑에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